

A photograph showing a long, multi-tiered metal stand filled with hundreds of small, lit oil lamps (diyas). The lamps are arranged in neat rows, and their flames create a warm, golden glow. In the background, a woman wearing a blue patterned dress is standing on a metal grate floor, looking towards the lamps. The scene is set outdoors, possibly at a religious or cultural event.

스리랑카, 세 번째 이야기
지(知)

Contents

1. 이벤트 캘린더
2. 11월 주요 활동내용
3. 11월 Extra 활동내용
4. 사진으로 보는 11월의 랑카
5. 11월을 마치며

11월 이벤트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땡인학교 100주년 콘서트 구경~	4 수데시 집에 초대받음!
5	6 Wall painting 마지막 스퍼트! 매일매일 6시에 Y로 출근!!	7 10월 월별보고서 마무리!	8 집주인 여동생 집에 초대받음^^	9	10 Wall painting 드디어 완성! 콜롬보 House of Fashion 구경!	11 신나는 휴일 K-Zone 놀러감♪
12	13	14	15 집 대청소 & 남자-여자방 바꿈! 한국어시험 특별반 (딱 한번 진행됨...)	16 YMCA 기도모임 참석	17 자아랏나 가족과 K-Zone 저녁식사!	18 스리랑카 활동 절반 되는 날!
 <p>우리들의 두번째 여행 - Point Pedro & Jaffna</p>						
19	20	21 우리의 물주기활동 랑카 신문에 소개^^	22	23 갓프리 따따와 칼루터러 템플 & 대저택 구경	24 오산드 콘서트 구경감	25 유스클럽과 새 프로그램 회의 자아랏나 따따집에 초대받음!
26 중간평가 준비 끝!	27 휴일 POYA Day	28 수무두 생일! 축하합니다♫	29 중간평가단 스리랑카 도착!	30 중간평가		



11월 주요 활동 내용

1)디그롤라 Class



11월, '마을'이란 주제로 종이접기, 체육, 음악 수업을 진행
->큰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이 맡고, 작은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9,10월보다 아이들 컨트롤도 잘되고,
수업도 더 잘 진행되었다. 역시 디그롤라 아이들은 춤추고 움직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앞으로 새천년체조는 매 수업 전마다 할 예정이다.

2) Lunawa Class



하반은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짐. 중반은 알파벳을 두 달째 외우고 있음. 상반은 게임으로 단어 만들기를 시도했으나 게임에만 너무 집중함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로 다가가야 할지, 언니/오빠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된다. 두 달째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외우질 못한다. (어찌해야 할까.) 남은 달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 콜라겐스



콜라겐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꾸려고 시도함

#8기가 생각하는 콜라겐스의 문제점

1)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환자분이 달라 관계맺기가 어려움

2)콜라겐스가 많이 남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마시기 싫어하는 환자분들께까지 마셔 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

3)우리가 투자한 시간, 노력에 비해 보람이 너무 없음

3) 콜라겐스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의를 통해 **elders home**으로 장소를 **옮겨** 관계맺기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커미티 미팅에서는 전 기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너희 기수들이 바꾸려고 하나**, 장소를 바꿀 수 없다, 지금 충분히 괜찮다 등의 이유로 장소를 옮기는 것은 **거절당** 했다.

하지만, 중간평가 이후 아나간사님, 이사분들과 회의를 통해 콜라겐스는 2주에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콜라겐스 준비 때문에 한 시간 밖에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루나와에서 두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콜라겐스 하고 나서 휴식을 가졌던 **수요일 오전** 이나 **오후에는 디고롤라를 방문**해 마을 어른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하여 두 개의 활동이나 추가되었다. 남은 두 달이 더 바쁜 일정으로 채워지겠지만, 더 즐겁고 알찬 나날이 될 것 같다! ☺

4) Youth club



‘세계가 만약 백 명의 마을이라면 ..’ 프로그램 진행

-> 유스클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니 유스클럽 멤버들도 우리를 이제 함께 활동하는 멤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정말 고마워했다. 이 때까지 충분히 친해졌기 때문에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다.

4) Youth club

Youth member들과
함께 논의 중인 new program,
“Field Trip”

(여전히 논의 중, 아직 확정된 바 없음)



Field Trip> 디고롤라, Lunawa, Children club 세 마을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번씩, 체험학습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유스클럽 멤버들이 그룹 교사로 자원봉사하고, Moratuwa YMCA에서 점심과 입장료를, 스리랑카 전 기수와 아산 YMCA에서 버스 대여료를 후원한다. (아산 YMCA 주말 프로그램 ‘도담도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

->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의욕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모라투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동안 Field trip을 위한 회의의 연속이었기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아주 뿌듯할 것 같다. ☺

5) 태권도 class



11월 칠드런클럽 아이들 대상으로 품새 심사

->2달 동안 품새를 가르친 아이들에게 심사를 보았다. 품새 동작들이 그려진 종이도 프린트해서 나눠줬건만 겨우 2명만이 태극 1,2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태권도 선수할 친구들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번 가르치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다. 수요일에 하는 YMCA멤버 클래스는 아무도 안 와서, 앞으로 태권도를 잘하는 칠드런클럽 아이들에게 CLASS를 오픈하여 주 2회 태권도를 배우게 할 것이다.

6) Korean class



글자 익히기,
일상 생활에 쓰이는 문장 익히기

-> 지난 달까지는 한국어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다. 이번 달에는 글자 익히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소리내는 법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시작해 기뻐다. 최근엔 기존 학생인 로시엔이 자신의 친구들을 몇 명을 더 데리고 와 함께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7) Children club



11월, 음악수업, 종이접고 그림그리기

->매번 진행할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칠드런클럽의 아이들은 연령이 다양해서 프로그램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할지 고민이다. 너무 쉬운것을 하면 큰애들이 지루해하고, 어려운 것을 하면 어린애들이 힘들어한다. 종이접기는 큰 아이들이고, 작은 아이들이고 둘 다 못했지만(랑카에는 종이접기가 없다!)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되었다.

8) Spoken English class



Level test를 거쳐,
세 반으로 나누어 수업진행

上반(담당:Himali) - 문법수업 위주로 진행, 시험을 2차례 봄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느리긴 하지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中반(담당:Namal) - 정확한 단어 스펠링 체크와 문장 만들기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서 기쁘다
下반(담당:Sumudu) - 알파벳 익히기와 간단한 챗 배우기
어린 친구들밖에 없어서 수업을 진행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해서 뿌듯하다



11월 **Extra** 활동 내용

1) Wall painting



2주동안 아주 열심히 함, 오후에는 비가 오거나 너무 더워서 일주일 동안은 아침 여섯시에 출근. 주제: 동물들과의 하모니 (모티브 얻은 디자인회사에 따로 허락구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벽화를 칠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특징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다만 YMCA안쪽이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쉽다.

나말: “같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나말은 다리를 다쳐 벽화기간 동안 집에 있으며 다른 일을 도와주었다)

2) 2nd Trip – Point Pedro, Jaffna



쓰나미 피해지역과 항구 유적지, 힌두 템플, Point Pedro · Jaffna YMCA 방문. 힌두교 퍼레이드와 지역 체육대회 구경
->스리랑카의 최북단에 위치한 포인트 페드로와 자프나. 거리가 거리인 만큼 쉬지 않고 이동하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첫 번째 여행에 비해 여유롭게 즐길 수는 없었지만, 두 도시는 여행지로서는 너무 좋은 곳이었다. 모라투와와 달리 이 곳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타밀’ 지역으로, 새로운 언어, 종교,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3) 이웃집 방문



수데쉬네, 주인집옆집,
루시루네 초대받아 방문하기
->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다. 공적인 만남
보다 사적인 만남들이 더 스리랑카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
어주는 것 같다.



4) 중간점검



11월 30일에 진행된 중간평가. 아나간사님과 진주Y 김일식 총장님과 함께 현장방문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논의를 함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간점검을 막상 하고 나니, 진짜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실감이 난다. 객관적인 코멘트를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지만, 좀 더 일찍 코멘트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사진으로 보는 11월의 랑카



사진으로 보는 11월의 랑카

11.03.SAT School for the deaf and blind
100주년 기념



11.04.SUN 수데시집 방문



11.01~11.11.SUN 벽화작업



11.12~11.14.WED. 2nd trip



11.12~11.14.WED. 2nd trip



11.12~11.14.WED. 2nd trip



11.12~11.14.WED. 2nd trip



11.12~11.14.WED. 2nd trip



11.23.FRI. Kalutara Temple, Richmond Castle



11.24.SAT. 오산드 유치원 콘서트



11.28.WED. 수무두 BIRTH DAY



අඩු ආදායම්ලාභී පවුල්වල දරුවන්ට නොමිලේ අතිරේක පන්ති

■ නාගාරජ සහ සටහන - ඉන්දීය මනෝජිතුරු

මොරටුව දිගරොල්ල වත්තේ පවුල් 80 කට වැඩි පිරිසක් පදිංචිව සිටින අඩු ආදායම්ලාභී පවුල්වල දරුවන්ට ගණිතය, සිංහල, ඉංග්‍රීසි විෂයයන් ඉගැන්වීමේ නව ව්‍යාපෘතියක් මොරටුව YMCA ආයතනය ආරම්භ කරන ලදී. මේ සඳහා වෘත්තීමය ශූරාවරුන්ගෙන් සහ ස්වේච්ඡා නිලධාරීන්ගෙන්ද එම ආයතනයේ කොටසක් කරගත්තේය. මෙම උපකාරක පංති මොරටුව YMCA ආයතනයේම පවත්වනු ලබන අතර, අසරණ දරුවන්ට නොමිලේ අධ්‍යාපනයක් ලබාදීමට මෙම ව්‍යාපෘතිය ප්‍රධාන අරමුණ වේ.



පංති පැවැත්වෙන නව ව්‍යාපෘතියක්ද ආරම්භ කර ඇත. එම පංති පවත්වනු ලබන්නේ කොරියානු තරුණ තරුණියන් විසිනි. මෙවැනි ව්‍යාපෘතියක් මගින් මොරටුව YMCA ආයතනය බලාපොරොත්තු වනුයේ රටේ අනාගතය බාරගැනීමට උගත් බුද්ධිමත් පිරිසක් රටට බිහි කිරීමයි.

මෙම ව්‍යාපෘතිය ඉදිරියේදීත් ඒ ආකාරයෙන්ම සිදුකිරීමට YMCA ආයතනය සියලු කටයුතු සංවිධානය කර ඇත. මෙයට සමගාමීව නව ව්‍යාපෘතියක් ලෙස මොරටුව ලුනාව සුනාමි හිවාස සංකීර්ණයේ අඩු ආදායම්ලාභී දෙමාපියන්ගේ දරුවන්ට නොමිලේ ඉංග්‍රීසි

2012.11.21

02

පුවත් NEWS

අපි වචන, නගරය අලංකාර කරමු

කැළිකසළවලින් තොර සුන්දර මොරටු නගරයක්

■ නාගාරජ සහ සටහන එම්.පී. ඉන්දීය මනෝජිතුරු මොරටුව / ගල්කිස්ස

පරිසරය ආරක්ෂා කිරීමේ අරමුණින් හා මොරටු නගරය අලංකාර කිරීමේ අරමුණින් මොරටුව YMCA තරුණ සංගමය මොරටුව නව ගාලු පාරේ මැද මං තීරුවේ මීටර් 50ක සීමාවක් තුළ පැළ සිටුවීමේ ව්‍යාපෘතියක් ආරම්භ කර ඇත.

මෙම තරුණ තරුණියන්ට වර්තා සහාය ලබාදෙනුයේ කොරියානු තරුණ තරුණියන්ය. මීට අමතරව සෑම උද්‍යෝගකම කොරියානු තරුණ තරුණියන් විසින් පරිසරය සුරැකීම පිළිබඳව වර්තා වැඩි සඳහාත් කරන ලද බෝඩි ලැලි මොරටු නගරයේ පුද්ගලික කරමින් ජනතාවට දෙන පණිවිඩය වන්නේ පරිසරය සුරැකීම අප කාගේත් යුතුකමක් යන පණිවිඩයයි. මෙම සිටුවන ලද පැළවලට නිසි සාත්තුව සෑම දිනකම ලබාදෙන්නේ කොරියානු තරුණ තරුණියන් විසිනි.

මෙයට සමගාමීව කැළිකසළ ප්‍රතිවක්‍රීකරණය කිරීම සඳහා මොරටු මහ නගර සභාවේ උපදෙස් මත පවුල් 80කට අධික ප්‍රමාණයක් පදිංචිව සිටින මොරටුව උස්වත්තේ ප්‍රදේශවාසීන්ට තම නිවෙස්වල එකතුවන කැළිකසළ බැහැර කිරීමට කොමිෂන්ස්ථි බලයක් බෙදාදීම මෙම වැඩසටහනේ තවත් විශේෂත්වයකි.

මීට අමතරව මොරටුව දුම්රිය ස්ථානය පිරිසිදුව තබාගැනීමට අරමුණින් එම ස්ථානයේ කැළිකසළ බැහැර කිරීමට ජ්ලාස්ටික් බලයන් 4ක් මොරටුව YMCA ආයතනය විසින් මොරටුව දුම්රිය ස්ථානයට පරිත්‍යාග කර ඇත.



කැළිකසළවලින් තොර අලංකාරවත් මොරටු නගරයක් බිහිකිරීමට මොරටුව YMCA තරුණ තරුණියන්ට මෙම ව්‍යාපෘතිය මෙතෙක් සාර්ථක කරගැනීමට හැකි ඇත්තේ කොරියානු තරුණ තරුණියන්ගෙන් ලැබෙන ඉමහත් සහයෝගය මතය.

මෙම ව්‍යාපෘතියට මොරටු මහ නගර සභාවේ, මොරටු පොලීසියේ හා මහාමාර්ග දෙපාර්තමේන්තුවේ ඉමහත් සහායක් ලැබී ඇත. මොරටු මහ නගර සභාවේ නගරාධිපති සමත් ලාල් ප්‍රනාන්දු මහතාගේ අධීක්ෂණයට යටතේ මෙම වැඩසටහන ක්‍රියාත්මක කෙ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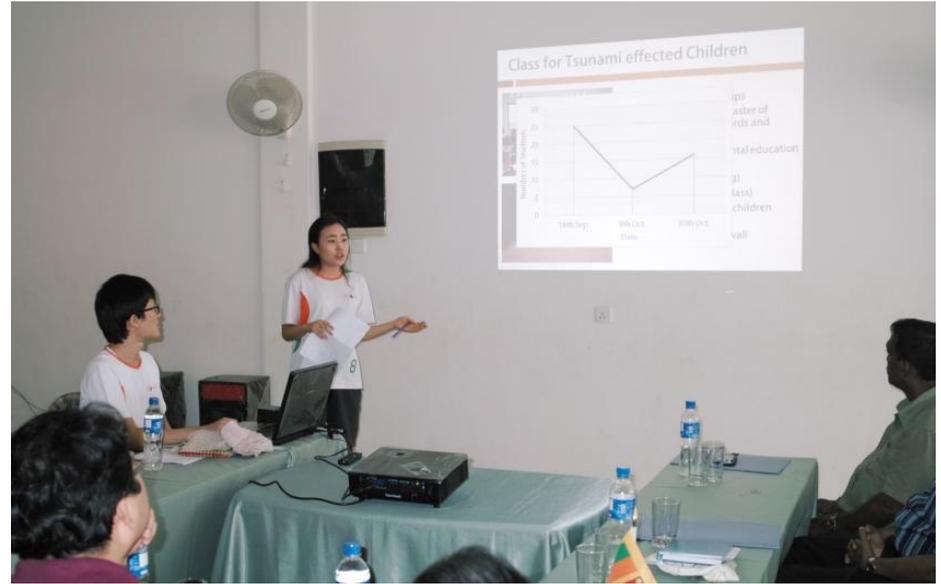
11.30~12.01.SAT. 중간평가



11.30~12.01.SAT. 중간평가



11.30~12.01.SAT. 중간평가



11.30~12.01.SAT. 중간평가



11.30~12.01.SAT. 중간평가



11월을 마치며 ...



Pathum: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절반까지 오는 그간의 시간들이 오르막길처럼 힘들게 느껴졌는데, 절반을 지난 지금은 가만히 머물고 싶어도 자꾸만 속력이 붙는 내리막길처럼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간다. 그건 아마, 이제는 서로의 다름에 힘들어하기보다 서로를 맞춰가며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지낼 날이 짧아짐에 따라 느껴지는 아쉬움이 더 커지기때문일까, 남은 시간동안에 더 많은 추억들을 가져가고만 싶다. 그렇게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무척이나 쓰라렸던 시간들도, 계속 함께 지내면서 곱씹으면 어느새 단맛이 나는 맛있는 기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남은 시간을 더욱 즐겁게 지내면서 더 달콤한 기억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

Sumudu: 11월을 리더로 보내면서 보람차고 알찬 한 달이 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다. 한 달 동안 팀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감사함도 많이 느꼈다. (특히 나의 생일날,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 평소에는 안 그런데... ㅎㅎ) 중간쯤 오니,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우리 팀워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 이곳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다. 수무두로 살아가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이 기적에 가까울 만큼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진짜 반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원하다기보다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ㅠ.ㅠ 남은 두 달도 후회없이! 파이팅이닷!

Himali: 이번 달은 모라투와 YMCA의 구조에서 오는 한계, 우리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의 수업이 지속되지 않는 문제, 청년들의 현실, 루나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쓰레기 문제 등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자원활동가 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여기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나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다.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전 한 명이 야채를 볶으면, 양념을 갖다주고, 다른 한 명은 밥을 차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한다. 팀워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

Namal: 다리를 다치면서 11월 초에는 YMCA에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집에 있는 동안 디고롤라, 루나와 마을의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라온아띠 벽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었다. 평소엔 YMCA에 가거나 아이들 만나는 수업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다쳤을 땐 밖에 나가서 무슨 일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신기했다.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나는 지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또한, 일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함께 할수록 효과가 배가된다. 같이 일하는 든든한 팀원이 있기에 우리의 활동이 빛날 수 있음을 느꼈다.